

성결대학교 탄핵반대 시국선언문

2025.3.7.(금요일) 오후 12:30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성결인들과 피치 못할 사정들과 아직은 이런 자리가 부담스러워서 나오지 못한 성결인들은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방관할 수 만은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하여 세워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리우는 선거, 그리고 그 꽃을 지키기 위해 누구보다 청렴해야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넘쳐나는 부정선거 증거들로 인해 국민들이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정 채용으로 가족회사라고 불리울 정도로 악습을 하고 있습니다. 악이 악을 낳을 뿐이지, 선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과연 이 부정한 선거를 통해 설립된 국회가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세워진 부정한 국회는 끊임없는 악법을 발의하고 현 정권이 힘을 쓰지 못하게 예산을 마구자비로 삭감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한 선택이 아닌 오로지 정치의 수단으로만 국회를 독점하는 특정 정당은 반성해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살리고자 윤석열 대통령은 적법한 계몽령을 선포하여 대한민국의 질서를 바로 잡고자 하셨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대통령이니 계엄령 말고 잘 소통하면 되지 않았냐고. 소통하고, 대통령으로써 힘을 쓰지 못하게 한 놈들이 누군지 돌아보십쇼! - 현재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으로 몰며 거짓 증언을 했던 이들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거짓 증언이라고 증거가 나오고 있고 본인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현재는 기각 시키십쇼. 재판을 받는 것 자체가 위법입니다.

이제 이 곳에 모인 성결인을 비롯한 모든 성결인들은 우리 선조들이 보여주셨던 것과 같이 나라를 목숨 바쳐 지켜야합니다. 숨어있지 말고 자신있게 목소리를 내야합니다!

민주주의의 꽃을 꺾은 선관위를 규탄한다!

거대 의석을 통해 질서를 흐리는 불법 국회는 해산하라!

성결인들이여 일어나라!

오늘 우리 성결인들은 이 자리에 모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다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성결대학교 여러분. 2025년 3월 7일 성결대학교는 탄핵 반대를 외치는 이들의 목소리가 한 곳에 모여 아름다운 곡조를 이루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기독교 국가입니다. 위기가 찾아올 때면 언제나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매번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모여 하나가 되어 이겨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되어 위기를 극복해야합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해야합니다. 이제는 좌우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살리느냐 죽이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워 대한민국을 위대하게 만드시겠습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을 특정 국가의 속국으로 만드시겠습니까? 이제는 눈을 뜨고 누가 악마의 탈을 쓰고 내란을 저지르고 있는지 보아야할 때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꼭 이겨야합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기필코 이겨야합니다!

여러분 함께 싸웁시다. 함께 힘을 모아 싸웁시다 !

불의한 자와 불의한 행동을 참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을 비롯한 선지동산에서 가르침을 받은 우리가 불의를 꺾 때입니다 !

성결대는 일어나라!

성결대는 깨어나라!

성결대는 동참하라!

탄핵을 반대하는 성결인의 모임